



아산 맑은 쌀

아산의 백년 미래를 향해 함께 뛰자

“21세기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열어 가는 아산

우리 아산시는 전국 기초 자치 단체 중에서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는가 이다. 말하자면 정확한 목표 설정과 방법론상의 효율성에 달린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아산시는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생각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에 민선 3기의 아산시는 이전의 행정 스타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아산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희망찬 비전 제시와 함께 행정의 전문화를 통하여 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지방 자치 시대의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열어 가고 있다.

그린도시속에 복지사회 실현한다

우리가 계획하는 21세기형 도시는 무엇보다도 자족적, 자생적 도시이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시는 사회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도시 발전의 기본 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무궁해 고부가가치

의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시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문화 도시 아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의 자연 환경적 특성에 따른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지역 농업을 특성화하고,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그린 도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웃을 아끼며 배려하는 복지 사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공무원이 변하면 시민이 즐겁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거기에는 합리적인 실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표는 실현 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푸른 미래는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20만 아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매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무작정 힘만 모으는는 안될 것이다. 집을 지어도 주춧돌이 있고 대들보가 있어야 되듯이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아산의 미래를 실현하는 일에도 체계가 있어야 하며 그 체계를 특성 지우는 양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아산 시민과 아산시의 역할 관계이며 이는 다른 표현으로 아산시 행정의 서비스 양식 문제라 하겠다.

행정전문화가 미래도시를 만든다

이에 아산시는 행정의 전문화를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전 직원들의 행정 박사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산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욕구 충족을 최대한 지원하며, 발전을 향한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는 아산의 미래는 멀리 떨어진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 오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공무원은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하여 타성적 행정에서 벗어나 실재적이고도 현장감 있는 행정에 앞장서 시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스스로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전문적 행정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시민과 행정 이 함께 어우러진 참다운 민주 행정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한마음 아산인, 미래로 세계로

제10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시민 대화합의 체육축제로



▲ 제10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입장식

시체육회는 20만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대화합의 장을 열 제10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10월2일(토) 순천향대학교에서 개최기로 하고 내실 있고 겸손한 행사 준비에 들어 갔다.

3부로 진행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오전 9시부터 제1부 기념식에서 전시민의 입장식에 이어 시민대상 시상, 제2부에서는 읍·면·동 대항으로 진행되는 기아

장에 돌파경기, 바구니 던지기등의 17개 종목의 체육대회가 펼쳐지며 제3부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OX게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상품도 마련돼 있고 우수성적을 거둔 읍·면·동에는 종합우승의 우승컵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시민의 대화합과 한마음 체육축제 차원에서 지역민의 참여도와 하한의 정도를 가늠하여 입장상, 화합상, 장려상, 경료상등을 마련

하고 온시민, 기관, 단체,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전 시민 체육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10월을 맞는 이번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시민의 대화합을 유도하면서 새롭

게 도약하는 우리시의 참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공동체 정신으로 아산의 외방한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해 오고 있으나 전년도에는 태풍 피해등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열리지 못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만 개최했었다.



▲ 가늘이 성큼 (무르익은 아산의 탕정 봉지포도)

지방도 628호선(음봉 - 탕정) 6차로로 확 · 포장

사업비 등을 감안, 우선 4차로로 확 · 포장 된다

시는 음봉 덕지리의 산동사거리에서 송촌리까지의 지방도 628호선을 6차로로 확보하고 우선 사업비등을 감안하여 4차로로 확 · 포장하기로 하기 위해 2002년 실시계획용역에 착수, 지난 5월 설계를 완료했다.

이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등 약 688억원이 투입되며 착공 일로부터 3년이 소요된다.

지방도 628호선이 우선 4차선으로 확 · 포장 되면 음봉면의 디스플레이 단지와의 접근성을 현저히 향

상시킴으로서 물류 유통비용의 절감효과등 사회간접 자본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천안 방향에서 진입하는 외래 관광객 및 산업용 차량등도 산동사거리에서 탕정 방면과 음봉 방면으로 분산되어 아산으로의 진입을 유도 하므로써 심한 정체 구간이었던 산동사거리의 교통혼잡을 완화 하도록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이번엔 우선 4차로로 확 · 포장 하기로 한 구간 외에도 국도 39호선과 연결되는 구간과 확 · 포장 사업을 계획하도록 충남도와 협의 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39호국도(아산-유구)를 타고 들어와 편리하게 아산온천으로 진입토록 유도 하므로써 관광아산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편리한 '교통카드시대' 활짝 열린다

시는 9월 21일부터 시내 및 농어촌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체가 되어 운영 하는 교통카드제를 시행한다.



▲ 교통카드 모형

이번에 시행할 교통카드제는 디지털충남카드(카드이름)를 구입하여 충남내도 16개 시 · 군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승차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카드의 충전과 잔액조회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다.

액세서리형과 미니형, 팬시형으로 만들어진 교통카드는 일반 보증금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학

생 및 단체에게는 일괄판매도 한다. 또한 시내 곳곳에 위치한 충전소에서 보충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용에 공급한 점은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042-221-0880), 아산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546-8141), 아산시청 교통행정과(540-2366)로 문의하면 되고 보증금 가입, 카드발행은 디지털 타처(558-0202), 마이비 콜센터(1588-8990)로 하면 된다.

■ 충전소 찾아가기

- 운양역 앞 매표소
- 동백식당(도고역 앞)
- 형곡슈퍼(시외버스터미널)
- 동방 DC마트
- 행평매표소(운양역 건너편)
- 건널목슈퍼(운양역 옆)

새주소 표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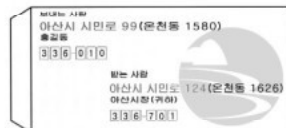
낮은 지역에서도 찾기 쉬운 선진국형 주소 체계

전국의 주소체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체계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낮은 지역에서도 복직까지 쉽게 찾아 갈수 있도록 개선 된다.

시는 우선 6개동지역의 새주소 부여 사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가동 했으며 6개동과 시외버스터미널등 다중집합건소에 연말 까지 도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한다.

이번 주소체계는 도로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도로를 따라 가면서 왼쪽은 홀수

현주소를 함께 쓰면 되고 우편봉투에도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쓰면 된다.



▲ 새주소는 우편봉투에 이렇게 쓰면됩니다.

오른쪽은 짝수의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했다.

또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새주소의 표기는 새주소와



▲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칼럼

문화 도시! 씨뿌리기 2년, 이젠 꽃을 피우자

현충사리단지, 명사성 고택과 같이 남다른 문화유산과 온전과 같은 자연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아산시는 21 세기가 추구하는 웰빙 사회를 선도적 으로 열어가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뼈대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에 전력투구하여 아산-문포간 국도 45호선 확포장 및 아산-유구간의 국도 39호선 확포장을 비롯, 문포-음봉-탕정-매곡간 국도 43호선 확포장, 아산-문포간 국도 45호선 확포장은 물론 남동-행려-중방간의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과 배방-탕정간의 4차선 도로 신설했다. 그리고 관내 주요 간선 도로 및 지방도 · 군도 ·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여 그늘형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 기능을 확충함과 아울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

민들에게 공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중수도시설형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사업으로 영인과 인주지역에 170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염치와 음봉지역에 174억원을 투입하는 중수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을 설치기도 하고 이미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간바 있다. 이밖에도 남동과 중기동 지역의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에 총25억원이 투입되며 탕정 호산리 주변에도 제2단계 상수도 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 공간 구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도시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준거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정에 "도시디자인 팀"을 신설하여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아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여유로움이 그들을 반길 수 있도록 200km에 달하는 꽃길을 만

들었으며 도시 공원과 시설 녹지를 조성하여 푸른 아산을 가꾸어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인구 20만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도시 규모라 하는데 우리 아산은 바로 이러한 최적 규모의 도시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많은 불문 그들이 대대손손 이 고장을 사랑하고 이 땅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교육 및 문화 활동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아산 시민 양과 세대를 걸뒀고 청소년 공부방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명문 학교와 명문 대학교를 관내에 유치하도록 하여 그 중 일부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내일의 국제화 일꾼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의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해 원어민 교사들 채용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하며, 200억원을 투자하여 영구적인 문화 증진을 도모한 관내

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온양문화제를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로 테마화하여 국가 문화 행사화 하였으며 외암리 조물문화제 역시 국가 문화제로 한결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아산시는 이러한 활발한 문화 활동을 시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고졸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화 도시 아산을 다듬어 나갈 체계적인 구도 잡기에 전력해나가고 있다.

조용한 전원도시에 문화의 신기루를 세워나가기 2년!

감각적이고 전문적인 행정력을 통하여 이제 아산은 그간의 막연함에서 벗어나 문화도시의 아름다운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타점과 골간이 만들어졌으며 운영의 프로그램조차 완비된 지금, 바야흐로 아산엔 문화 꽃이 개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편집자 주)

시간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 하다. <RW에머슨>

우리는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였다

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기도 어느덧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으나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정치·경제·외교·문화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끊임없이 부딪쳐왔다. 최근 우리는 이라크파병, 북한의 핵문제, 미군의 철수 및 기지이전, 경기침체로 사회적 불안 심리가 없지 않으나 지방자치 13년의 역사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케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은 사회를 튼튼하고 건장하게 발전시키는데 안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방자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를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본 호에서는 제4대 정반기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한다.



▲ 군부대이전관련 현장방문

1. 의회 운영

1.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 현황

구분 \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의회운영	6회 54일	9회 80일	6회 30일
	정례회 2회(35일) 임시회 4회(19일)	정례회 2회(35일) 임시회 7회(45일)	정례회 1회(8일) 임시회 5회(22일)
안건심의	86건	60건	58건

2. 주요 조례안 의결 및 건의안 채택

■ 아산시농림지역에서위락·숙박 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행위가 제한 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 아산시부설공사방지조례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설공사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로 정함.

■ 아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대지보상재원을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 아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에 대한 전기요금을 사비로 특별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함.

■ 아산시법정전염병피해축산농가재물 지원에관한조례안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육가축을 살처분, 물건을 소각·매몰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재물 의지를 고취함을 물론 축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아산시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조례안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 아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제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자민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건의안

행정수도 이전 및 역세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건의안을 채택(제74회 임시회)하여 아산시 도시발전 저해 등 각종 폐해를 시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생활의 안

정과 아산시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설교통부에 건의안을 송부하였다.

■ 아산시역투기과열지구해제건의안

아산지역은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아산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며 다지역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이 낮고 아파트시장의 과열현상이 없는 지역이므로 투기과열지구지정을 조기에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제78회 정례회)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에 송부하였다.

3. 아산역명 관철 특위 활동

2003년도 제74회 임시회기중 아산신도시 개발촉진 및 아산역명 관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본 특위에서는 아산역명 관철을 위한 도보행군 및 전의원의 식발투쟁을 거행하였고, 역사에서의 침묵시위, 천막농성, 시민 2천여명과 아산역사수결의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운양역 앞 촛불시위, 과천종합천에서 시민 5천여명과 팔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펼쳐나감에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특위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

11. 주요 의정활동

1.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에 제70회 정례회 기간중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2003년도에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를 대상으로 시장정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행정의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정하게 시정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 보강시키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장 및 건의사항을 2002년도에 25건, 2003년도에 56건을 채택하였다.

2. 시정질문

2002년 제1,2차 정례회를 통하여 시장정반에 대한 120건의 질문과 2003년 제1,2차 정례회를 통하여 130건의 질문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의 추진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을 질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

민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시정을 펼쳐나가고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아산시 의회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현장을 직접 누비며 시청에서 제출한 예산이 적정인지, 시민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 예산안에서 여부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사업장마다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노력하였다.

4. 선진지 견학

아산시의회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위주로 비교 검토하여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파주시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연수는 1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청소·환경 분야인 쓰레기 소각장 가동 문제와 관련하여 쓰레기 정책에 대해 이해

를 넓히고 주민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과정 등 의회운영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로 창출 될 것이다.

5. 해외 연수

아산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를 통해 선진의회 제도 및 운영, 상호 공동선상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답사하여 그들의 추진과정을 직접 체험함으

로써 우리시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의정에 접목시키고자 2004. 3. 3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선진문화의 습득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도시 환경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운영실태를 집중탐구하여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의정자료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III. 기타 의회 운영



▲ 본양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의 의회

학생모의의회 운영

관내 초·중·고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의정활동 체험을 통하여 토론문화의 정착과 질서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21세기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생모의의회를 운영하였다.

지갑에는 아무도 손 대지 않은 24시간이 가득 차 있다. <아놀드 베넷>



▲준법시민

▼버려진 양심



! 쓰레기 배출 요령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기

▶ 폐기물 분리 배출은?

- 재활용품 : 종류별로 분리, 마대나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종이, 병, 캔, 고철 등)
- 대형폐기물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폐증 구입, 부착후 배출

- 음식물류 : 물기제거후 수거전용 용기나 노란색 음식물전용봉투로 배출
-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분리배출 날짜와 시간은?

-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 매주화요일 일몰이후(수요일 새벽에 수거)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월요일~일요일 일몰 후(화요일 제외)

시민이 주인, 이러시면 안됩니다

쓰레기, 시민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1회용품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 방송을 위해 400개의 테이프를

제작 배부하고 15,000부의 안내문도 따로 제작, 시민에게 배포 하므로서 범시민적인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 운동을 유도 했다.

또한 34개소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첨 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전시민이 참여 하도록 홍보효과를 높여 나갔다.

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미리미리 준비 토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시민들이 알고 적극 동참토록 각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시는 쓰레기처리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분리배출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쓰레기 처리는 전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임을 공감하고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상님들 떡메치기, 나도 한번 해볼까?

모·부자가정 여름캠프, 영인산 휴양림에서



▲여름캠프에서의 떡메치기

저소득층의 모자,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시가 영인산 휴양림에 여름캠프를 마련하여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현실을 잊고 오랫동안 즐겁고 유익한 한 때를 보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4일 동안 관내 모·부자가정 100여이 참가하는 여름캠프를 열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가족간의 대화와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어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일차에 운영해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 만들기'라는 주제에 맞게 영인산과 세계 꽃식물원에서 자연 학습체험과 기념제 탕방(한대자동차), 물설매타기, 물놀이 등 신나는 자유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시립합창단이 산상음악회를 열어 찾고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세족식 체험,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환경신문단들기, 가족대화를 이끌어 낸 의사소통 방법들을 김경희교수(나사렛대)등 초빙된 전문가의 지도로 체험학습을 했다.

특히 외암민속마을 청년회장 이규정의 지도하에 메를 치고 손으로 주물러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절미'를 만들어 보는 떡메치기 코너를 마련하여 우리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시간도 가졌다.



▲문수네 사랑쟁기 러브하우스'



▲아기애어디 좀 볼까?모수유아선발대회 최고건강아



사진으로 보는 아산뉴스



▲시청에서 맛보는 시원·달콤한 아이스크림



▲금년말 분양완료 예정인 인주지방 산업단지



▲쑥쑥 올라온 삼성LCD공장 위용

인생의 의미는 끊임 없는 전진에 있다. <니체>

2004 영어캠프를 떠나면서

120여명 참가자 호평, 영어실력향상에 크게 기여

시가 순천향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영어 캠프가 참가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14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초등학생 77명과 중학생 43명 등 총 123명이 신청해 당초 예정했던 인원보다 20여명이 더 참가, 7개반으로 구성해 원어민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영어 회화와 머니게임 등 생활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된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교육방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영어 실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109명(88.6%)이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원어민교수의 수업 진행 열의에도 92명(74.8%)이 좋았다고 자체 설문조사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영어 습득을 위한 머니게임에서는 영어로 의사를 전달하면서 자기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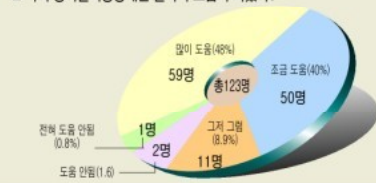
▲ 영어캠프가 마련한 바베큐 파티

한 학용품들 물품구매활동을 연습해 봄으로서 실용영어 체험이란 면에서

참여자들로부터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영어 캠프가 내실있는 준비와 학부모들의 교육열의, 좋은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들의 열띤 외유이 조화를 이뤄 성공적으로 영어캠프를 마무리 했다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확대를 검토 할 계획이다.

■ 나의 영어실력향상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세계인의 눈, 그리스 아테네로

아산시청 하키농자 태극전사 되어 아테네를 평정한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지구촌 스포츠인이 축제 제28회 올림픽에 아산시청 하키팀의 임주영, 김진경이 태극전사로 뛰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마블필더로 활약할 김진경과 한국의 수문장이 될 임주영은 아산시청 하키팀을 순계 전국여자하키우승 등극등 아산시청 하키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네덜란드, 남아공화국이어 호주, 독일과 같은 조에 편성돼 있어 경기결과에 따라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갖도록 돼 있는 여자 하키팀에서 우리 선수들은 하키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세계민방에 휘날릴 것을 기대해 본다.

한편 이번 올림픽 여자하키는 10개팀이 참가해 2개조로 나뉘어 14일부터 27일까지 각국의 명예를 걸



김진경



임주영

고 열전을 치른뒤 27일 02:30에 결승전을 갖는다.

하키!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 팀 구성은 11명, 35분씩 2쿼터로, 중간 휴식시간은 10분,
-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 18세기 말 영국에서 현대 경기의 형태로 발전
-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경기에 포함
- 하키의 볼은 156-163g, 스틱으로 상대편 서클에 볼을 넣으면 점수를 얻는다
- 하키팀기장을 pitch라고 부르며 길이 91.4m, 너비 55m의 직사각형



▲ 정정당당한 둔포 체육인 전시

둔포면주민자치위원회(홍창남)는 8월15일 '제54회 면민의 날'을 맞아 1만1천여 명이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체육대회와 푸짐한 경품 잔치 등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둔포초·중·고등학교

경기, 단축 마라톤 등 동심이 세계로 돌아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치루면서 학교 운동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와함께 둔포초등학교 강당에서는 면내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품 잔치를 열어 시립합창단의 흥겨운 민요경창과

둔포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의 현란한 댄스, 둔포면 노인복지회의 노래로 꾸며져 어르신들의 주름살을 활짝 펴게 했다.

또한 둔포면과 자매결연을 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둔포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한화건설, 에이치 팜, 한리드&O에서도 면민의 날을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 해 주민 화합잔치의 의미를 더하게 했다.

한편 둔포면(이창승)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근의 타시·도에 비

해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이를 해쳐 나가는 데는 주민화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체육대회와 경품잔치를 통한 주민화합이 지역발전의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지도자회, 조기축구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 있는 준비로 해를 거듭 할수록 성공적인 행사로 거듭나고 있어 내일의 面政을 밝게하고 있다.

둔포 1만1천면민 하나 되던 날

공도차고 예전의 그 넓은 학교마당 달려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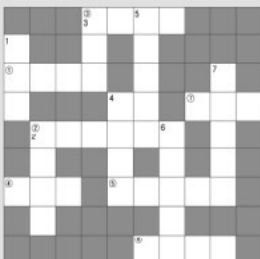
예의란 쓰면 불수록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짝 지폐와도 같다. <쇼펜하우어>

여의정



유하순(여성단체협의회 총무)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푸근해진다. 1998년 여성단체협의회 총무직을 맡으면서 미소 속에 내재해 있던 봉사정신이 실천으로 이어져 봉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가사봉사자를 운영하여 부자가정(36세대) 김치 및 밀반찬지원 운동을 펼쳤으며 독거노인과 부의탁노인을 위한 복육봉사, 김장담궈 주기 등 어렵고 힘든 노력 봉사장에선 늘 분주하고 자상한 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검절약 정신과 이웃사랑 실천에 관심을 갖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 전개,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알뜰상설매장 운영(무공해비누, 휴지와 재활용품 교환해 주기)에 고고 있다. 아침의 해가 아산에 떠오르는 한 유쾌한 총무의 따스한 손길이 끊임없이 번져 나가리라 기대해 본다.

날땀땀 추기



〈세로열쇠〉

1. 온양온천역에서 현충교로 가는 큰길
2. 주은(아)에서 문화중학교, 여의정을 지나 용화동까지
3. 농업기반공사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를 지나가자
4. 가산동 산정상부에 솟아 오른 산성
5. 백방 세교리의 토성
6. 온양6동 읍내리에 위치한 성 외곽에 출토했다는 군요
7. 음봉면에 솟아 오른 토성

〈가로열쇠〉

1. 온양5동사무소에서 국민생활관 쪽으로 가는 큰길
2. 음봉면 감가리 북방의 산성
3. 아산 온정, 2층을 가도살며 옛날로 가는 큰길
4. 프라자호텔에서 기업은행을 거쳐 옥정교로 이어진 길
5. 온양 6동 읍내리의 토성
6. 신항읍내리에 있는 돌로 만든 성
7. 웅악사거리에서 풍기농장을 거쳐 음봉면으로 가는 큰길



주부명예기자

아쉬운 주인의식 No.

온양2동 주부명예기자 이혜상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전에 살던 곳보다 시내가 멀지 않고 학교하고도 가까워 있어 여러모로 생활하기 편리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살수록 정이 간다.

생활의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정이가는 이유를 손 꼽으려면 바로 여의정을 들 수 있다.

여의정은 먼 옛날 조선조 세종대왕이 우리지역에 행차하여 안일을 고쳤다고 전해 내려오는 유서깊은 샘물로 아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3년도 공주대학교 유적발굴탐에 의해 발굴되어 충남도의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에서 예산을 들여 옛 모습을 복원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예쁘게 단장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춘 곳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늘막도 있어 더운 여름엔 한낮의 더위를 피해 나와 이곳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 하고하고 아이들이 자장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기 하고하며 가끔씩 음악회도 열리는 컨디터가 놀이터이며 문화공간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면서 가끔씩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정문 앞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밑에 지지분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때문이다. 풍랑제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 아침 일찍 청소부 아저씨들이 만곡히 치워주시지만 공공질서를 어기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쓰레기, 정해진 요일이 아닌데도 나와 있는 다리하나 부러진 식탁의자, 여러모로 위험해же만 보이는 개진 폐형광등,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잡쓰레기와 찢어진 봉투들.....

참 아깝다.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닌데 서로서로 조금만 신경써서 분리수거도 하고 지정된 요일에 맞게 쓰레기를

내놓으면 우리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의 바깥 마당의 주인이 될 수 있을텐데 하는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물론 생활환경에 따라 분리수거 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지구는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동안 빌려쓰는 것이라 라는 마음 가짐을 갖는다면 작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실천하는 자세를 습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가 막 결혼을 해서 모산의 작은 빌라에 살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곳은 마치 분리수거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버려야 했다. 생각다 못해 재활용품을 한데 모았다가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언니네로 가져가곤 했었다.

결혼한 나는 이미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생활화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정도 번거로움은 극복(?)하기 쉽게 느껴졌고 약 2년 동안 언니네 재활용품창고 이용은 계속 됐다. 그리고 이런 나의 생활습관은 한편으로 나를 뿌듯하게 하는 자부심, 자긍심을 남들께 느끼게도 했으니 아마 나는 내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음을 스스로 답답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한분은 분리수거통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산교육을 시킨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모으도록 하고 정해진 요일에 수거 장소까지 나르는 일을 하도록 한다.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캔, 종이, 병, 봉지류를 각각의 분리수거함에 버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가를 알게워 주는 것만 좋은 사고육인 것 같아 나도 내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리면 분리수거 정도는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다.

나는 생각없이 함부로 버리면서 내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공명불을 외워대는 엄마가 되지는 않을 생각이다.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아이들이 따라 오게 하는 현명한 모범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천해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우리후손에게 남겨 주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아산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2004년 아산시민의 날을 맞아 아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아산시민대상』을 시상 하오니 마대사양을 참고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추천기간: 2004. 8. 6 (금) ~ 9. 1 (수)
- ☐ 추천서 부문: 효행, 교육문화, 사회봉사, 지역개발, 체육부문
- ☐ 추천서 교부: 아산시청 총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비지)
- ☐ 접수처: 아산시청 총무과
- ☐ 기타문의: 아산시청 총무과 041-540-2236, 2237

2004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표와 거주사실을 일치토록 주민등록일제정리 시행한다

- ☐ 일제 정리 기간: 2004. 8. 17(화) ~ 9. 25(토)
- ☐ 일제정리 내용:
 - 가. 관내 거주 주민등록 미신고자 전입신고 (인센티브 제공예정)
 - 나.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다.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라.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마.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
- ☐ 시민합의조치 사항:
 - 가. 주민등록 미정입자 전입신고 나. 정기간내 자진신고 과태료 1/2경감조치 참고
- ☐ 기타문의: 아산시청 주민자치과, 읍·면·동사무소 041-540-2851

병원비 부담 아산시가 덜어드립시다

희귀난치성질환(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 신부전증, 각종 암)이나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을 앓고 계신 시민이나 가족의 의료비 부담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아래 예시표 참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액(월)	441,871원	731,810원	1,006,555원	1,266,108원	1,439,564원

□ 지원내용

- ▶ 1종 대상자: 병·의원 이용시 진료비 전액무료
- ▶ 2종 대상자: 보건기관 진료비 무료, 의원(투약 1,500원, 입원진료비 85%지원, 대불금제, 보성금제, 성한제도 시행)
- ☐ 신청절차: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 연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 기타문의: 사회복지과 041-540-2314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 내 · 알 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인상 안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예방을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2004. 8. 22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 적용됩니다.

구 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영업자동차	
	현행	변경	현행	변경	대인배상1	대인배상2
기한초과 10일 이내	3,000	6,000	5,000	10,000	30,000	30,000
10일 초과 매월 초과마다	600	1,200	2,000	4,000	8,000	8,000
최고액	100,000	200,000	300,000	600,000	1,000,000	1,000,000

□ 문의전화 : 교통행정과 540-2361

2004년도 정기본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기간 : 2004. 8. 16 ~ 8. 31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과세대상 :
 - ▶ 2004. 8. 1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 ▶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총매출액 및 부가세 4,800만원이상)
 -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액상 생군제 공급안내

- 공급기간 : 2004. 1. ~ 12. (12개월)
- 공 급 량 : 생군제 제조 2,500 t (300여농가)
- 소 급여용 생군제 제조 및 급여
- ▶ 미생물 원액(분양용종균) 1 t + 당일 300ml + 물 35 l 희석
- ▶ 배합사료(밀기울 또는 쌀겨) 100kg과 혼합(수분 30~60% 기준)
- ▶ 10~20일간 밀봉저장(20℃이상 유지)후 급여(체중의 3%)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540-2438

2004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 아산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오는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동지역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읍·면지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 사업기간 : 2004. 10. 4 ~ 2004. 12. 25
- 선발자격 및 인원 :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 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동자임을 증명한 자(90명)
-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구직활동확인서, 휴학증명서(해당자) 등
- 문의전화 : 지역경제과 540-2352, 540-2351

2004 제2기 아산시 아버지대학 운영 계획

- 기 간 : 2004. 9. 2 ~ 10. 7(6주) 매주 목요일 19:30 ~ 21:30
- 장 소 : 온양관광호텔 민들레홀
- 대 상 : 행복한 가정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아버지
- 인 원 : 30명(신청순)
- 신청기간 : 2004. 8. 16 ~ 8. 30
- 참가비 : 40,000원
- 문의전화 : 543-0601, 011-436-8516

일 자	주 제	강 사
9. 2	진정한 자아상	구 태일리-장보영 대표
9. 9	아버지의 권리와 인격	아산가정행복학교-온재현 대표
9. 16	성공 대화기법	대전대학교-윤지영 교수
9. 23	아버지의 영향력	가정행복학교-박종혜 소장
9. 30	남편으로서의 인생	ENRICH 이산상담소-이명숙 상담
10. 7	이내의 함께하는 사랑의 축제	이산가정행복학교-온재현 대표

도시가스 공급신청 사용안내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절차
- ▶ 도시가스 공급계획(5년) 작성 도시사업에 제출 - 도시가스회사
-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2년) 수립 공고-도시사업
- ▶ 공사계획공고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 실시
- 도시가스 신규 사용절차
-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여부 확인 후
- ▶ 공급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보급금 납부
- ▶ 시설공사 업체 선정 가구내 사용자공급금 시설공사 실시
- ▶ 사전 공급전 안전점검 실시
- ▶ 도시가스 공급 의뢰후 가스사용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 안내

- 사용금지 1회용품
- ▶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합성수지로 도포된 광고 선전물 (매장내 사용금지)
-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 ▶ 1회용 컵, 면도기, 시약, 샴푸, 린스, 중후, 샴푸, 박대종선, 비닐 방석등의 사용을 억제대금 지급
- 대상 업소
- ▶ 식당, 음식점, 목욕탕, 여관, 슈퍼마켓 판매점, 운동장, 체육관 등
- 사업장내 외 자판기 설치류 선택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1회용품으로 제공할 수 없음(사기검 등으로 사용요망)
- 허용된 경우
- ▶ 혼례, 회갑연, 상례의 하객, 조객들에게 제공시 경우
- ▶ 음식을 배달하거나, 가져갈 시 (단 도시락용기는 합성수지 재질외의 용기 또는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것)
-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을 판매시 가능
- ▶ 이쑤시개는 계산대 앞에 제공 별도 회수유가 비치 사용시
- ▶ 관광호텔은 별도의 장소에 비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시
- ▶ 생선, 정육, 채소 음식로품 걸면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보관제품을 위한 합성수지 재질봉투 사용시
- ▶ A4, 또는 1000mm 이하 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 ▶ 물과 국물을 담기위한 경우는 합성수지용기 사용가능
- ▶ 식육위생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사용가능
- ▶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은 사용가능
- 위반처
- ▶ 매장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10만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자 : 과태료부과 금액에 따라 3만원 ~ 1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 시행일
- ▶ 1회용품사용규제법 2003년 7월 1일부터 포상금제도 2004년 1월 5일부터
- 문의처 : www.one.me.go.kr(환경부) 환경보호과 041-540-2335

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안내

-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활어(살아 있는 물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2004. 7. 15부터 시행하여 9.1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 표시대상 : 국내산, 수입산 포함
- 대상업소 : 음식점, 횡집, 활어도 · 소매상, 대형마트 등 활어 취급업소
- 원산지표시요령 :
 - ▶ 표시방법 : 수족관과 활어차량 등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구별될 수 있도록 칸을 나누어 보관하고 못할 또는 표시판으로 표시(국산 또는 수입산으로 표시)
 - ▶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
 - ▶ 위반시 처벌 : 허위표시-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전화 : 농정과 수산담당 540-2337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 변경 안내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변경하였기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염치읍 전지역	현행과 같음	
송악면 전지역	현행과 같음	
신창면 전지역	현행과 같음	
※ 예외지역 준용대상 은주리 산외곡(배방면) 동방중합약국(배방면) 광산약방(도고면) 활명당약방(돈포면) 음봉보건지소(음봉면) 성담약국(음봉면) 탕정보건지소(탕정면) 대흥약방(산정면) 별원약국(인주면) 현대자동차의원(인주면)	※ 예외지역 준용대상 오노리 산외곡(배방면) 동방중합약국(배방면) 광산약방(도고면) 활명당약방(돈포면) 음봉보건지소(음봉면) 성담약국(음봉면) 탕정보건지소(탕정면) 별원약국(인주면) 현대자동차의원(인주면) 다정한약국(음봉면)	- 대흥약방(산정면) 폐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대상에서 제외 - 다정한약국(음봉면) 개설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대상으로 추가



한여름밤 문화시민과 함께 했던 신정호 그 화려한 야외무대

시가 시민들이 한여름밤 무더위를 식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신정호 넓은 잔디밭을 활용한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사)육원청소년육성개발원이 주관하

여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시간을 이용한 영화상영과 작은 음악회, 시립합창단의 연주 등이 이어지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입소문이 번져 나갔고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신정호를 찾아와 매주 공연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통키타의 밤'이 열렸던 8월 14일에는



▲ 시립합창단 공연



▲ 통키타 연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순천대학교 클래식기타동아리가 연주한 '새', '밤과 꿈', '문리버' ▲조혜진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주세요', '유채이와 개구리' 등 2시간여 동안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기타선율로 한여름밤의 열기를 식히기도 했다. 신정호를 찾은 시민 이모씨는 "오랫만에 즐겁고 편안한 기타음악에 저녁 시간가는 줄 몰랐다"면서, "가족과 함께 우연히 찾은 신

정호에서 이런 행운의 날을 맞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와 좋은 공연을 구경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립합창단의 순회 연주회, 각급 민간단체를 통한 작은 음악회, 음악동호인들의 연주활동 등을 전개 하므로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면서

음악을 통해 도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문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동호인들의 작품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전시회, 음악, 국악, 연극 등의 공연을 유도 하므로서 아산만이 갖는 독특하고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행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가을! 길찾아 책속으로

시립도서관, 독서퀴즈왕 선발등 독서의 달 풍성한 행사 마련



아산시 시립도서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 독서를 통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도서관이 좀더 가까이 시민 곁에 있어 만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행사(독후 감상문쓰기, 포스터 그리기등)와 도서관존, 독서 퀴즈왕 선발행사를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하므로서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 유발과 함께 도서관 이용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분관농민들에게 장작의지를 독논아 주고 작품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문화기행(9월17일 효석문화재-강원도 평창)과 ▲작가와와의 만남(9월18일 이지유) 등화 구연 및 작품 발표회(9월18일)도 계획돼 있다.

이와함께 독서의 달 행사에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 보조 가방 500장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예쁜 책갈피 1,000장도 나눠주며 좋은 책 선정에 도움이 되는 추천도서목록도 작성 매부 안다.

시립도서관 한 관계자는 "도서관이 보다 많은 자를 준비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산시민의 정보 및 문화 보고(寶庫)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안내

구 분	기 간	장 소	대 상	내 용
권화 전시회 (홍익회개원)	9.1~9.25	송곡 도서관	제한 없음	송곡도서관(명지출 송곡리) 12층 중앙현관 30여점 전시
독서 포스터 그리기	9.4~9.18	송곡 도서관	초등 학생	우편 및 직접 접수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작 선정 시상(3점)
독후 감상문 쓰기	9.4~9.18	송곡 도서관	초등학교 및 일반	우편 및 직접 접수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작 선정 시상(3점)
도서 나눔전	9.11	역전 공작	제한 없음	도서관 보유 생활속의 전문 필자와 각종 홍보지, 홍보물 무료 배포 (10:00 ~ 12:00까지)
독서 퀴즈왕	9.7~9.21	시립 도서관 (영국대관 동리)	초등 학생	선정된 도서의 퀴즈 정답 자 중 도서관 별 추첨 시상(9명)

8·15광복, 태극기 휘날리며

이산의 유국충절 지사 이준열

3·1운동을 절후한 시기에 농부에게 활약을 하였던 이준열은 아산군 탐정면 갈산리(당시 명칭)의 출신으로 온안공립보통학교에 입학 했다가 심경하여 퇴학에 경진했다.

1916년 경진, 공립전문학교에 입학 졸업 후 1919년 봄부터 독립운동에 적극 참가, 비밀결사인 공우회 조직, 3월1일 독립만세운동에 진분하고 학생동원 담당, 경성공전 동맹휴학 위원장에 피선, 대학교 전문학교의 학생동원을 위한 중앙 연락 위원으로 활동했다.

4년제 중등학교인 구학당(舊學堂)성린, 가난한 청년 무상교육으로 8천여명의 애국 학도 배출, 광주학생사건, 학생혁명사건과 연루 고학당은 폐교조치되고 계속되는 독립운동으로 일본경찰에 체포 7년 인도로 옥고를 지냈다.

출감후 광양대동광업전문학교를 설립 이사에 취임해 후학 육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우리지적 유국지사다.